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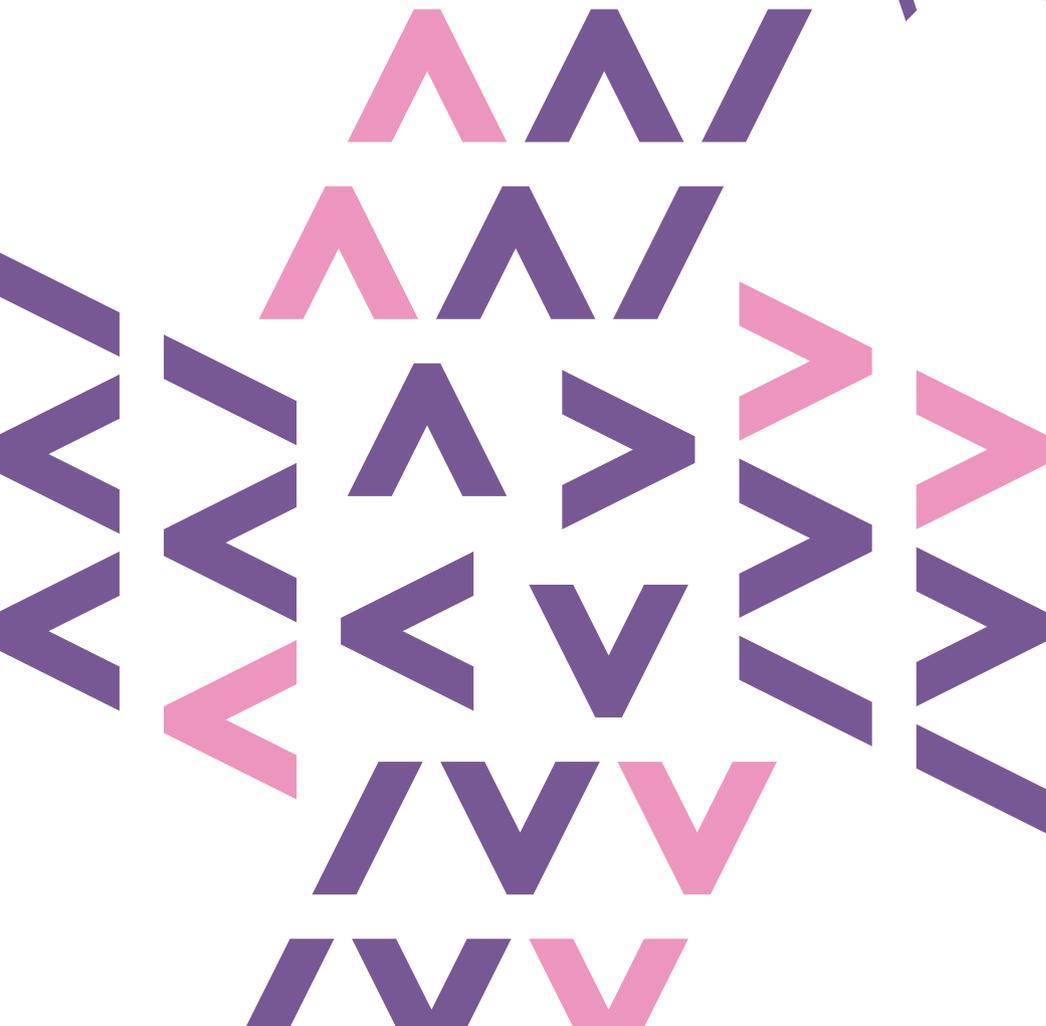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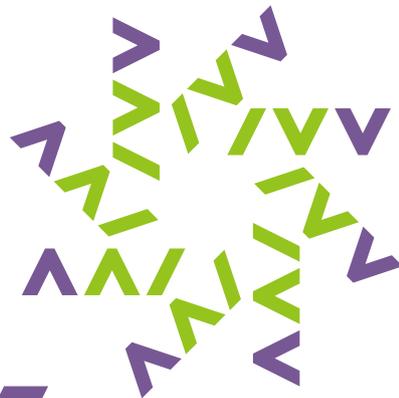
20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Annual Report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2017



20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Annual Report

늘 예술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하는 일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창작역량강화 사업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창작 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들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를 지원하여, 창작안전망 구축을 도모합니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대!

직업역량강화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은 예술인에게 사회적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의 창조성을 사회의 전 부문에 접목시켜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가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술인의 권리보호 강화!

예술환경 개선(불공정관행 개선) 사업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종합지원시스템입니다. 불공정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줄어들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은 예술인이 안정된 제도망 안에서 보다 행복한 예술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사회보장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해 중장기적인 복지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 창출

Innovation through Creative Collaboration between Artists and Organizations

☞ 목차의 페이지 숫자를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ONTENTS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하는 일 Work 02	재단 소개 Introduction 06	인터뷰 Interview 16
인사말 연혁 조직도 부서소개 미션 & 비전	재단 현황 Present Condition 36	숫자로 보는 예술인 복지 사업 Business Highlights 44
사업성과 Primary Business 24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예술인 법률상담 · 컨설팅 예술활동증명(예술인패스, 예술인 행복주택) 재단홍보 사업예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예술인 신문고/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예술인 의료비 지원/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창작역량강화 직업역량강화 예술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2017 예술인복지재단 통계자료 Statistics 50	2017 주요 언론보도 News 56
2017 예술인복지재단 통계자료 Statistics 50	2017 예술인복지재단 주요 일지 Issue 54	정책토론회 및 대통령 업무보고 예술인패스, 불공정행위 신고 · 상담센터 복지사업 설명회 및 복지정책 토론회 예술인복지 전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꿈과 열망을 응원합니다.**
 ”



예술인복지재단은 가난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단 이름에 ‘복지’가 들어가 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너무도 미약한 소득으로 말미암아 곤궁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이 아니라 예술인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예술인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재단이 하는 일은 후원이 아니라 응원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예술분야는 아직까지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예술 활동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 많고, 불합리한 처우 등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되었고, 아직은 미약하나마 우리 재단에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질만으로는 진정한 복지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술인복지는 일회적인 창작지원금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술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나 부당한 처우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불의의 재해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예술인들은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분들이고 섬세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꿈과 열망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응원은 선수들이 지치고 힘들어 할 때,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필요합니다. 생활에 치여 소망이 가려지거나, 열망의 불이 사그라지거나, 꿈을 접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예술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예술인의 친구, 예술인복지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임이사

김희성

2011

10. 28
예술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 17
예술인 복지법 제정

2012

8. 17 ~ 9. 26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9. 7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청회

11. 6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무회의 통과

11. 18
예술인복지법 시행

11. 19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대 이사장 김주영 취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심재찬 취임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

11. 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소식

2013

7. 11
문화예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7. 1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30
예술인복지지원센터 개소

10. 10 ~ 11. 18
예술인복지 정책토론회
(총 4회)

11. 14
농촌재능나눔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한국농어촌공사)

12. 10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

2. 4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2. 24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오픈

3. 27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예술법인
지정

4. 15
반디돌봄센터 개소(대학로)

5. 14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

6. 19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시행(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업무협약 체결)

7. 16 ~ 7. 17
창조산업 일자리
페스티벌 개최

7. 22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청회

10. 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 취임

12. 19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제정

12. 30
직제개편

2015

1. 29
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지정

4. 1
연구자료기탁 업무협약
(한국사회과학자료원)

4. 13
2015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5. 28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2016

2. 3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5.4시행)

2. 11
문화·예술인 패스 사업 이관

2. 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대 이사장 이문열 취임

3. 30
예술인복지 홍보대사
위촉(배우 이순재)

8. 9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9. 21 ~ 17. 1. 18
예술인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총 15개
광역/기초 문화재단)

11. 2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행복주택 입주자
자격 예술인 확대(12.30 시행))

2017

3. 14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개소
(마포)

3. 16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

9. 22
“예술을 통한 혁신적
가치창출” 국제세미나 개최

12. 20
창작준비금지원 제도 개선
공청회

12. 28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개소

12. 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기반(연구 등) 구축

2018

1. 5
직제개편

2. 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희섭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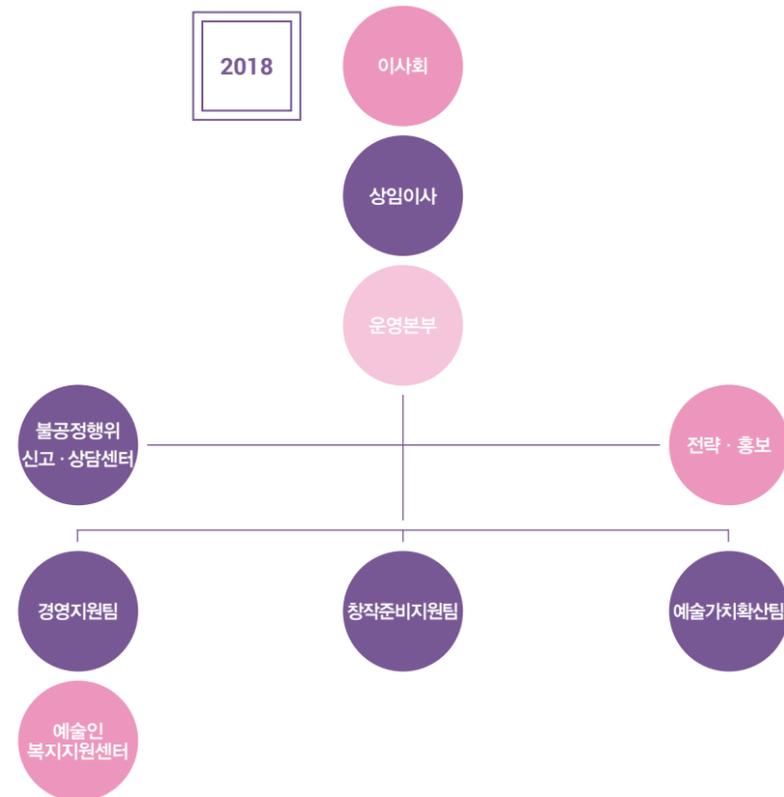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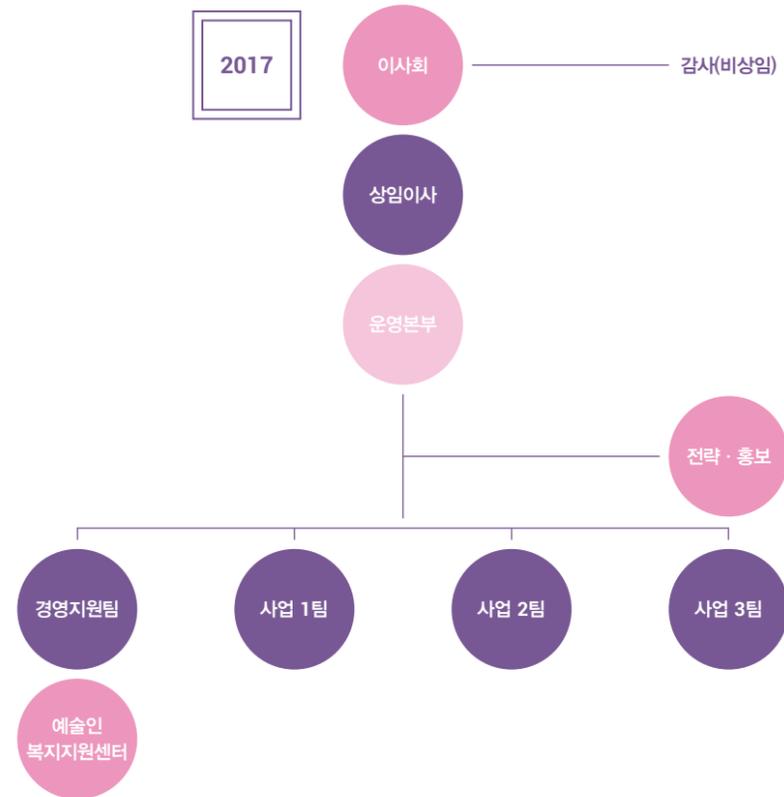
6. 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3대 이사장 윤영달 취임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언제나 늘 예술인 곁에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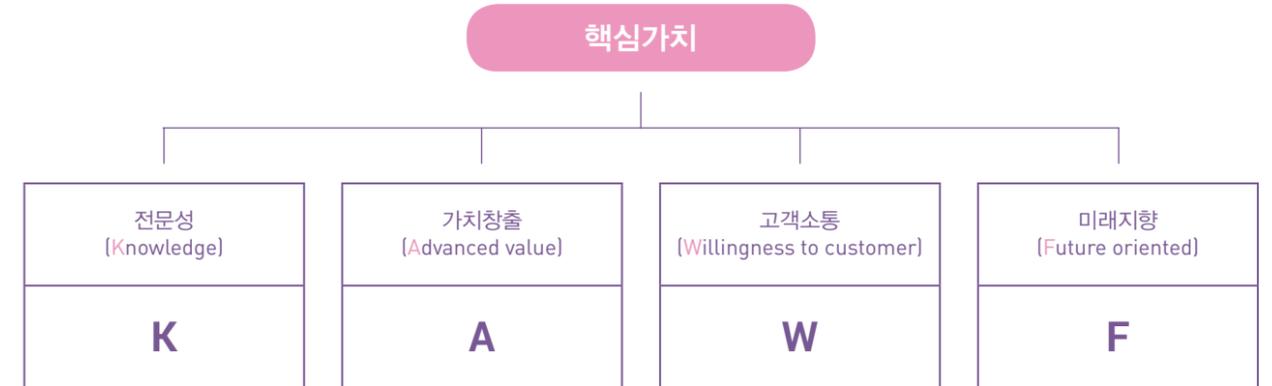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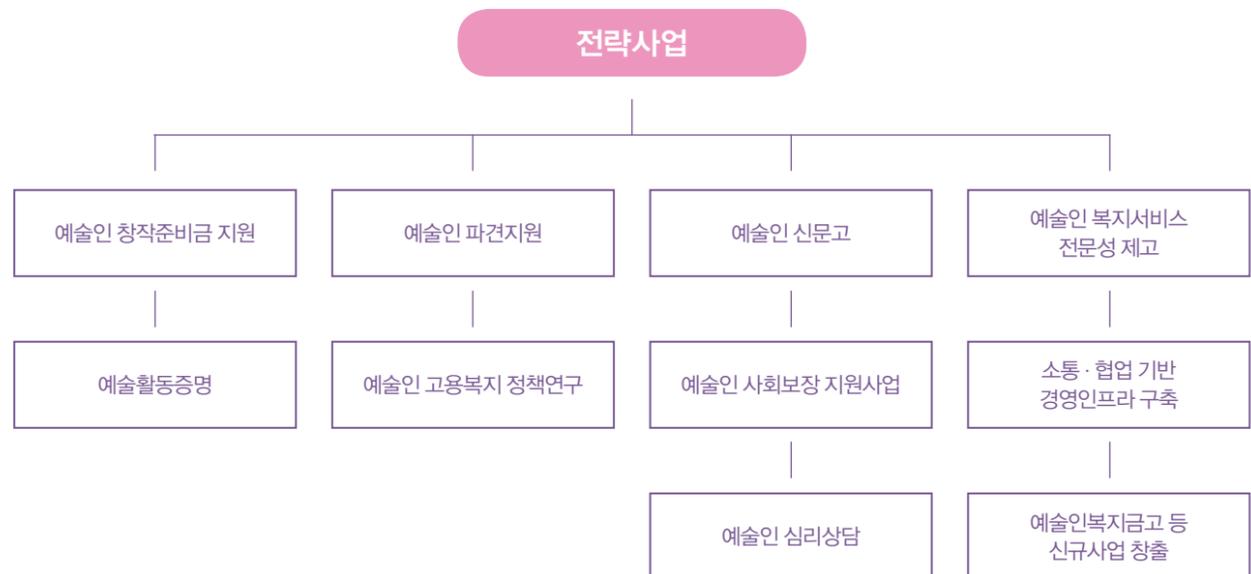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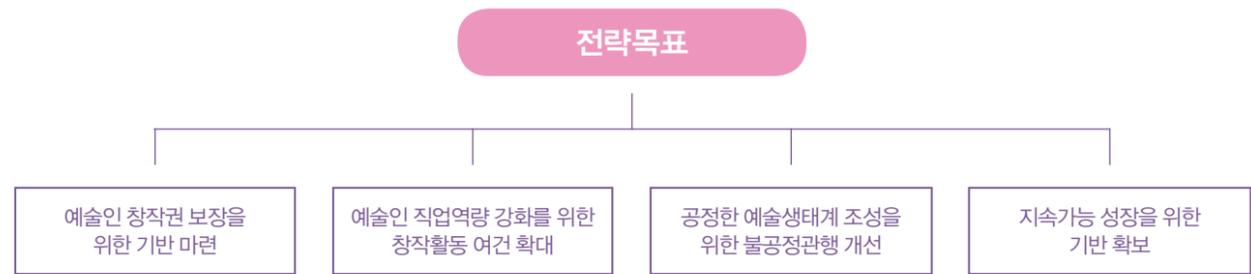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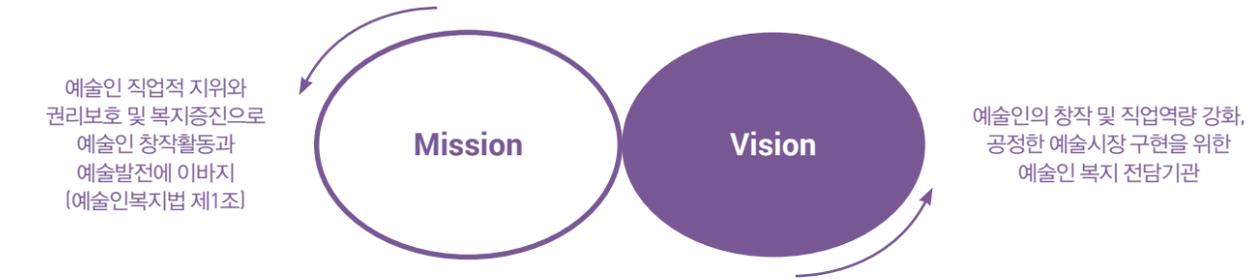
〈예술인 비전지원 사업〉
말하고 듣는 자리
2017. 11. 10(금)
서울기악협회 대강당





팀명	업무분장
전략·홍보	1. 기획·연구, 성과관리 2. 재단 홍보 등
경영지원팀	<경영지원> 1. 주요 업무계획 수립 2. 예산 편성·기획·관리, 계약 3. 경영기획 및 평가분석, 자감사 4. 규정 제·개정 및 제도 관리 5. 법인 인감 및 직인관리 6. 국회 및 대외 업무 7. 인사·노무·직원교육·근태관리 8. 회계·총무 9. 조사·연구 10. 웹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보호 11.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복지금고 등) 등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1. 예술활동증명 지원 2. 문화예술인패스 사업 3. 법률상담카페 4. 재단 사업 안내 및 응대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1. 예술인 신문고 운영 2.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3.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4.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5.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6. 상담 컨설팅 지원
창작준비지원팀	1. 예술활동 장려 지원 2. 원로 예술인 예술활동 지원 3. 의료비 지원 등
예술가치확산팀	1. 예술인 파견 지원 2.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을 이야기하다

나이는 숫자일 뿐,
연극계 발전 위해 노력할 터

2017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배우 박 응



연기 인생 55년을 살아온 배우 박 응은 “문화 예술은 개인 및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정신적인 요소라 예술인의 활동을 통해 국민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경제적 지원은 예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연극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제적, 문화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술계 종사자들은 생활에 대한 자립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은데다 개인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자신의 사정을 얘기할 창구가 없었습니다. 연극배우를 비롯한 예술인들은 자유업 종사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인 능력과 경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예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경제적 지원까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단의 존재감은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인들은 각 분야별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정서에 기여하는 동안 재단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은 외롭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예술인으로 살아오시면서 느끼셨던 소회를 말씀하신다면?

연기 인생 55년을 거쳐 오면서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다만 주변의 칭찬과 격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또는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일종의 욕심을 가진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기라는 한 길만을 바라보고 걸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며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연극인으로 살아오면서 저 자신과 더불어 주변 관계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실제 1951년 (사)한국연극배우협회를 만들어 1대부터 3대까지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대학로문화발전협회에서도 4대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연극 환경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나이와 상관없이 연극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혼자만의 힘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올곧게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극배우를 비롯한 예술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영양가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 예술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년제와 4년제 교육기관을 통틀어 문화 예술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미국 소재 대학에도 연극영화과는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성세대는 예술계 종사자들을 두고 ‘딴따라’라며 비하하기도 하지만 실제 예술인들이 ‘한류’의 주역이 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자신이 진정 원하는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세상에 선보일 수 있고 여기에 관련 재단의 지원이 가미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바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지원에 대해 절대적인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등 재정적 지원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창작준비지원금의 경우 예술인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은 그 자체로 개인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정신적인 요소들이라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잊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배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예술인 신문고 컨설턴트, 법무법인 감우
김계환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감우의 김계환 변호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채권추심, 산업재해 등의 현장 이슈에 대응한 법률 컨설턴트를 맡고 있다. 그에게 예술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이슈에 대해 들어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처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알게 된 건 교통사고 때문이었어요. 연극배우분이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배우 분은 사망하셨고 이 분은 중상을 입었는데, 보험회사와의 합의 문제로 처음 상담을 시작했죠. 이후로 '크루'라고 부르는 무대 스텝이 무대 조명장치가 떨어져 크게 다친 사건에서 산재 보상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보험과 산업재해와 관련된 일이었지만 역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법률상담 사례는 출연료 미지급 사례입니다.

출연료 미지급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공연 분야에서 출연료 미지급은 상습적입니다. 업체들이 영세한데다 출연료에 대한 책임을 회사 대표 개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지기 때문에 돈을 받을 방법이 요원하죠. A라는 법인을 운영하다 출연료를 주지 않고 폐업한 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버려요. 소송을 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우니 보람이 없죠. 체당금이나 보험, 이행 보증제도 등 새롭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술인 신문고 제도의 성과는 없었나요?

제도가 있기 전과 후는 많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예술인들은 근로자와 다름없고 근로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보니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길이 막막하죠. 상대는 법무팀을 가지고 있는 대형기획사인 경우도 있고, 법무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들 변호사를 대동해서 법률이슈에 대응합니다. 예술인들이 전혀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등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비해 확실히 상담 빈도도 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다른 어떤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나요?

채권추심이나 산업재해, 저작권 등 기존에 제기됐던 법률 이슈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의 컨설턴트들이 활동 중입니다.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장의 이슈가 있다면 다른 아닌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에 전문화된 컨설턴트가 부족해요. 성범죄 분야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범죄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 컨설턴트를 추가로 확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계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도 너같이 젊었을 때는 고생을 했고, 내가 했던 고생에 비하면 네 고생은 별 것 아니다'라고 말하며 후배들의 고생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풍토가 있습니다. 이런 인식은 사회 전반적으로 존재하지만 특히 공연계는 심한 편이에요. 자신이 고생했다면 후배는 덜 고생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선배의 역할이 아닐까요? 예술도, 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는 일이니까요.

국가가 적극 나서서 예술인들의 활동 인정해야

예술인 산재보험 1호 가입자
성악가 이정현

성악가 이정현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산재보험 최초 가입자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관심과 함께 현재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의 활동을
토대로 국내 예술인들의 복지 제도와 권익 향상을 위해 재능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산재보험 최초 가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복지재단을
접하게 되셨나요?**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오페라하우스도 건립되어 있으며 예술인들이 장기간 공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휴식 시간도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종신 예술인으로서 인정도 받습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분야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계 및 이와 관련된 방어막 구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제가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에서 이사로 활동하면서 예술인복지재단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재단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데다 활동 사항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다 보니 산재 보험도 빨리 가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재 보험 가입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일정량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활동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음악인들은 자신의 몸이 약기인데다 조각이나 설치미술인들의 경우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다소 까다롭지만 주변 예술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을 알리면서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바라는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바로티와 같은 유명 성악인들은 고액의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는 40년 공부하고 40분 공연을 했다”고 말하면서 수익금에 대한 주변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예술인들이 무대나 방송에서 보이지 않으면 쉬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 예술인들은 공연이 없을 때도 계속 연구하고 개인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예술인들의 활동 상황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예술인들이 분야별로 자신의 활동을 인정받고 일정 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후배들 역시 보다 나은 조건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음악인으로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무대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출정식 때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표선수 세계 투어 행사 등 2차례에 걸쳐 애국가를 불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북콘서트나 암환우 대상 음악회 등 재능기부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음악을 통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 있다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활동 계획이 궁금합니다.

빠르면 올 가을에 3집 앨범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2011년에 2집이 발매된 이후 다소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보 발매에 전력투구하고 싶습니다. 또 5년째 진행 중인 방송을 통해서도 대중과 클래식이 친해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오페라 관련 서적도 집필 중이라 조만간 독자들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운명처럼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만났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퍼실리테이터 남정애



마포지역에서 활동하는 퍼실리테이터이자 자신 역시 영화예술인인 남정애 작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현장에서 퍼실리테이터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왔던 작가에게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현장에서 느낀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어땠나요?

저에게 필요했던 사업이었는데 운명처럼 만났어요. 저역시 예술인이고, 다큐 영화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방송작가를 오래 했고요. 우리 같은 예술인들은 직업안정성이 낮고 사회안전망도 전무해요. 그런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삶의 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예술인이 직접 기업이나 기관과 협업한다 하더라도 프리랜서 개념으로 종속되거나 예술 활동 보다는 기능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은 보다 자율적인 주제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예술인들에게 자국이 되는 사업이에요.

최근의 성과가 있다면?

지난해 마포 지역에서 진행했던 '마포 희망 나눔'사업은 마포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취지로 시작됐어요. 이 분들은 형편이 좋지 않아 평생 예술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는데, 지난해 예술인들이 미술 치유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심심풀이'라는 이름을 붙여 예술활동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혼자라는 사실과 가난을 부끄러워 하셨는데 어느새 모임에 주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게 됐어요. 올해도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지난해보다 당당해지셨어요. 덧붙여 지역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술인마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기가 모두 달라요. 특히 예술인들은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기관과 기업도 각자의 뜻이 있다보니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퍼실리테이터는 관계자를 모두 만나보고 끊임없이 활동을 지속해갈 수 있도록 공통된 지점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관의 주문을 받아주는 하청업자가 아니에요. 예술인이 스스로 발견하는 주제를 끌고 가서 기관과 기업의 주제와 접점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직 퍼실리테이터로 더 공부하고 숙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개자의 역할에 대해 공부했지만 그것을 실용화해서 현실에 적용하려니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하곤 합니다. 유럽에서 만들어진 이론은 한국의 기업과 기관 문화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국내에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통해 알게 된 많은 예술인들과 협업의 분야를 확장시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어쨌든 퍼실리테이터는 예술인들의 사업 참여 의지와 상상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창작역량강화

STABILIZATION OF CREATION

세부사업

- 창작준비금 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 예술인 의료비 지원

직업역량강화

DEVELOPMENT OF ARTIST'S CAREER SKILL

세부사업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예술환경 개선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세부사업

- 예술인 신문고
-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 예술인 심리상담

사회안전망 구축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세부사업

-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 국민연금)



창작역량강화

STABILIZATION OF CREATION

- 창작준비금 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예술인 의료비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15,228명 누적 수혜 인원

3,000,000원 1인당 지원금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입이 없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재단 대표사업입니다. 2013년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지원(창작디딤돌)',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2015년 '창작준비금지원'으로 이어져 온 이 사업은 2016년과 2017년에는 예술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보다 많은 예술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를 북돋우고 창작안전을 구축해왔습니다. 2017년까지 총 15,228명의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이 창의적인 예술로

예술인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창작역량강화' 사업은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예술창작 활동 및 직업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모해 희망과 창작의 따뜻한 햇볕이 되어줍니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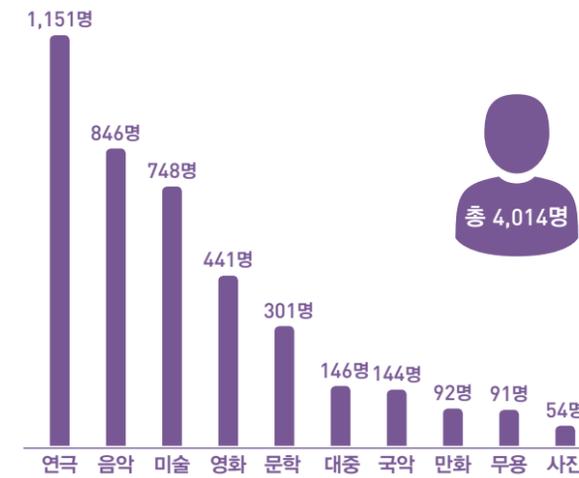


108명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만70세 수혜 대상 예술 활동 경력 20년 이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척박한 땅에서 예술혼을 불살라 온 원로예술인 발굴에 적극 앞장서 왔습니다.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평생 예술에 헌신해 온 원로예술인들을 제대로 대우한 뜻깊은 사업입니다. 이는 예술 활동 지속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창작활동의 기회가 적은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이 예술 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지원금도 2015년 1인 200만 원에서 2016년 부터는 1인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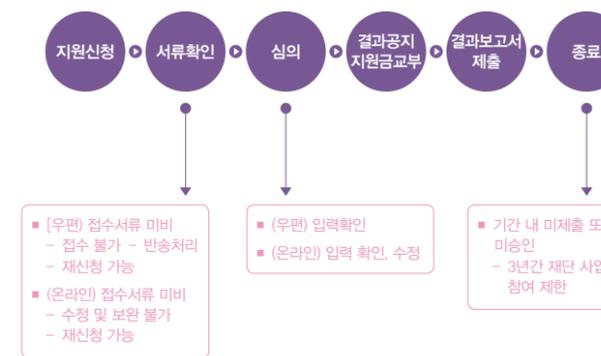
2017년 분야별 창작준비금 수혜자 현황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원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소득) 가구원 소득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내 예술인
- (건강보험료) "신청인이 등재된" 건강보험료 월 고지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신청인이 가입자) 또는 150%(신청인이 피부양자) 이내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6년부터 2018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발표된 예술 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1건)
-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의 경우 만 70세 이상, 예술활동 경력 20년이상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

2017년 창작준비금지원 절차



예술인 의료비 지원



137명 누적 수혜 인원

397,300,000원 의료비 지원 총 예산

2013년부터 5년 간 시행된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과 과도한 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출' 상황으로 고통 받는 예술인에게 의료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주었습니다. 5년 간 시행된 의료비 지원금 예산은 총 3억 9천 7백만 원으로, 이 사업을 통해 총 137명의 중증질환 예술인들이 의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신청 자격은 중증질환자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원료하고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80% 이하 예술인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예술활동증명 대신 예술경력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조항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분야별 지원 현황



직업역량강화

DEVELOPMENT OF ARTIST'S CAREER SKILL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적극적 예술인 복지 실현

'직업역량강화'사업은 예술인 생활지원이라는 일반적 복지를 넘어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통해 예술적 개입을 통한 사회의 혁신 등 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업입니다. 또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능과 기량이 빛날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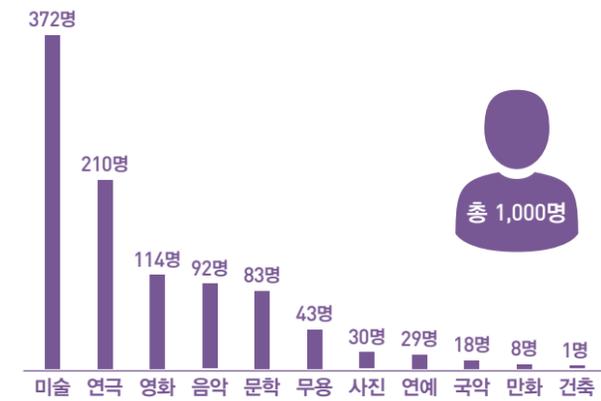
1,000명 2017년 수혜 인원

287개 2017년 수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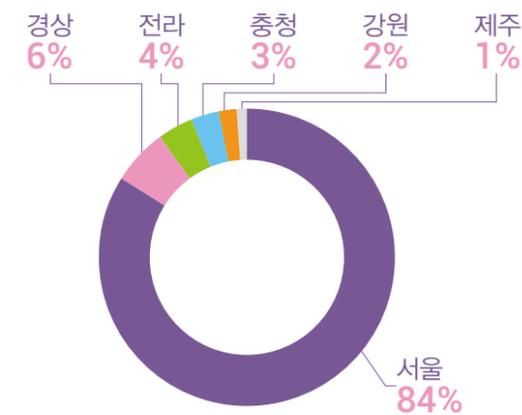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된 '예술인 파견지원'은 예술인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며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을 통해 예술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 기관, 지역과 예술인을 연결하고 적극 지원한 결과, 예술인의 활동 영역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성과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술적 기획·협업구조 모델을 만들어 문화의 창조성이 사회 전 부문에 접목되어 문화, 산업, 경제로 예술인의 가치가 확대되도록 합니다.

2014년에는 참여 예술인 337명과 참여 기업·기관 176개에 불과했던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2015년에는 총 509명의 예술인과 190개 기업·기관, 2016년에는 1,014명의 예술인과 280개 기업·기관, 2017년에는 1,000명의 예술인과 287개 기업·기관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7년 분야별 예술인 파견지원 수혜자 현황



2017년 지역별 예술인 파견지원 현황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8,720명 누적 수혜 인원

95명 2017년 등록 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시간제 맞춤형 돌봄(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예술인에게는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이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돌봄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보육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2014년 서울 대학로에 개소한 '반디돌봄센터'는 국내 최초의 특정 직군을 위한 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했던 시간제 돌봄 지원서비스는 2016년부터 전 분야 예술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두 번째 시간제 돌봄시설인 '예술인자녀돌봄센터(예봄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24개월~10세 미만 자녀를 둔 예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은 시간당 500원이라는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예술인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소재지

반디돌봄센터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3길 5번지
아남아파트상가 301동 106호,107호
전화 02)741-0347

예술인자녀돌봄센터
서울시 마포구 방울내로 11길 15-4
전화 02)3143-1919

온라인 카페
cafe.daum.net/bandicare
cafe.naver.com/yebomcenter

예술환경 개선

BETTER WORKING CONDITION FOR THE ARTIST

- 예술인 신문고
-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 신문고



165건 2017년 접수 건수

109건 2017년 종결 건수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행정구제와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 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을 구축해 예술계에 만연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신고 사건접수 165건 중 45건의 소송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공증수수료 등 분쟁 중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며 1인당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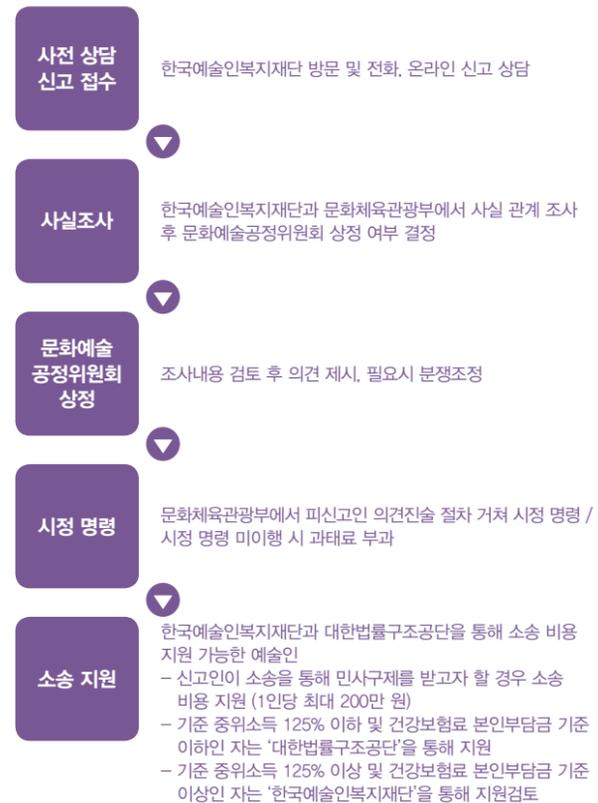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위해

'예술환경 개선'은 예술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이바지하고 예술창작 활동 과정에서 파생되는 예술인의 심리적인 고충을 해소해주는 사업입니다.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은 예술인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창작의 날개를 펼 수 있는 터전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7년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예술가와 보다 가까운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 건수

수익배분의 거부·지연·제한 행위	135건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24건
예술창작 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3건
정보의 부당 이용 및 제공 행위	3건

예술인 신문고 지원 절차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32종 분야별 표준계약서 증수

1,623명 2017년 계약 및 저작권 교육 수강 인원 (34회 교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은 예술 현장의 무계약, 구두 계약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계약문화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단은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계약 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통해 실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은 크게 분야별 예술인을 대상으로 '현업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와 예술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대학 내 관련 부서 및 단과대학과 연계한 '예비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특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현업예술인을 대상으로 18회의 강의를 진행하여 532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16회의 찾아가는 특강을 통해 1,091명의 예비예술인이 표준계약서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분야별 표준계약서 현황

공연예술	3종
방송	8종
영화	4종
출판	7종
저작권	4종
만화	6종

예술인 심리상담



734건 2017년 개인 심리상담 건수

332건 2017년 집단 심리상담 건수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개인 심리상담과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했던 사업은 2015년부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은 2016년 전국 25개에서 2017년 31개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까지 총 1,066명의 예술인이 개인 및 집단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17개 이외에도 전국의 다양한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이 있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도 불편 없이 총 12회 무료 심리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처음 시범 운영 후 만족도가 높았던 <예술인 숲 치유 캠프>를 비롯해 <예술인 마음 치유 캠프>, <지피지기>, <자기성장과 치유> 등 다양한 예술인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예술인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예술인 숲 치유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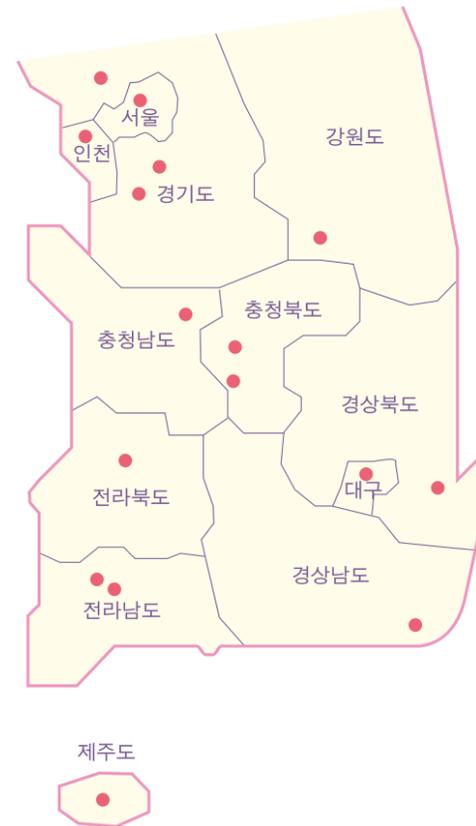


예술인 마음 치유 캠프



지피지기

2017년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명단



- 서울(10)
 - 다움심리상담센터(www.daumcc.com)
 -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16 대정프라자 602호 02-2672-1377
 - 마음산책심리상담센터(www.mesc.co.kr)
 - 서울 중구 퇴계로32길22 1층 02-821-5953
 - 마음의숲심리상담센터(www.mindforest24.com)
 -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13 대림아크로텔 2913호 02-2187-7499
 - 새봄심리상담연구소(newspring2017.com)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95 삼부골든타워 1006호 02-3273-2017
 - 세인임상심리연구소(www.seinpsy.com)
 -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84 현대 레이크빌 306호 02-6287-1275
 - 심리상담센터 헤세드(hesed.or.kr)
 -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384 대호프라자 225-1호 02-931-1307
 - 이수심리상담센터(www.esupsy.co.kr)
 - 서울 동작구 사당로 268 (사당동 1001-33) 2층 02-523-5283
 - 이화심리상담센터(www.ewhachild.co.kr)
 - 서울시 도봉구 창동 331-2 중앙빌딩 4층 402호 02-999-5232
 - 행복심리센터 밝음(www.bhappy.co.kr)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88 대남빌딩 5층 02-516-9060
 - 행복찾기(http://happycenter7.com/)
 - 서울 서초구 잠원로8길25 래미안팰리스상가 4층 010-6335-0391
- 경기권(7)
 - 구성심리상담센터 - 부천(www.gusung.co.kr)
 - 경기 부천시 소항로 13번길 14-16 대맥프라자 4층 032-205-8598

- 구성심리상담센터 - 광명(www.gusung.co.kr)
-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2, 504호 02-6952-3677
- 이튼샘 아동청소년 가족상담 연구소(www.안양심리상담.kr)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평촌아크로타워 A동 1211호 031-478-9958
- 파크심리상담센터(구: 한빛)(blog.naver.com/hbs8286)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중앙노블레스 6층 031-405-8255
- 향기나무심리상담센터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56번길 7 지오베르크 1016호 031-304-4985
- 로템심리학습상담센터(www.rodemplc.com)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10 우림로데오스위트 514호 031-904-4569
- 학습과사랑임상심리연구소(http://학습과사랑.com)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7번지 두산위브 파빌리온 A동 1411호 031-785-3987
- 인천(2)
 - 내맘N심리상담센터(http://www.dearchild.org)
 - 인천 부평구 길주로 633 3층 303호 (삼산동, 삼산메디캐슬) 032-513-6600
 - 마음애심리상담센터(www.melove.or.kr)
 - 인천 부평구 경인로 887 롯데아이원 502호 032-518-8087 / 032-518-8088
- 강원(2)
 - 지우심리상담센터(www.wisefriend.co.kr)
 -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0 노빌리티타워 1703호 033-744-1579
- 상담센터 나무
- 강원 춘천시 춘천로 180 봄내병원 1층 033-257-2266
- 충청권(3)
 - 손애리심리연구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3 현대아이텔 418호 010-4174-0060
 - 학습&마음심리상담센터(www.학습과마음.kr)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아이파크 2차 211동 703호 041-558-3837
 - 충북심리건강센터(cbpsy.cafe24.com)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33 043-283-2841
- 경상권(3)
 - 강박사마음&학습상담센터(www.부산심리상담.com)
 -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98 대하프라자 8층 051-703-2870
 - 참마음심리상담센터(www.cmaum.com)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1번길 16 054-276-9175
 -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www.smphc.org)
 -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306호 053-657-6571
- 전라권(3)
 - 심리건강연구소(www.cnupsy.org)
 - 광주 동구 남문로 758 2층 062-512-0039
 - 최영미마음상담센터(www.happychoi.or.kr)
 - 광주 북구 동문대로 111 이상클릭빌딩 4층 062-263-7942
 - 온다라심리교육상담실(www.councenter.com)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영진빌딩 5층 501호 063-273-5496
- 제주(1)
 - 내마음의 펭귄(www.pgofmind.com)
 - 제주시 연화중길 12-9 301호 070-4213-8080

사회안전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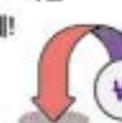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

-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 국민연금)

행복한 예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은 예술인이 안정된 제도망 안에서 보다 행복한 예술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사회보장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해 중장기적인 복지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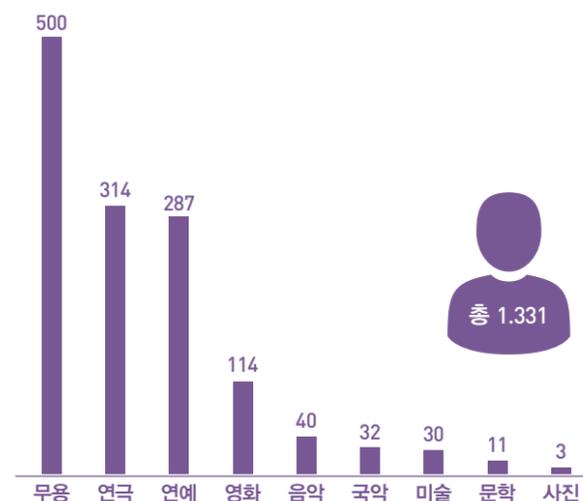
<p>예술인 산재보험 소개</p> <p>예술가의 활동을 사회보험이 보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치료와 산후한 사회여건을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은 프리랜서 예술인도 직접 예술활동(예술활동 계약 기간)중에 일어난 사고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p>예술인 산재보험의 장점</p> <p>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비와 생활보조금 지원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 발생시 치료비부터 생활보조금, 장제, 유족금까지 폭넓게 보장 - 민간보험은 보장액 한도를 정하지만, 산재보험은 부상정도에 따라 지원액이 변하고 치료비의 한도 제한이 없음 - 가입신청과 지급, 과징액에 대한 가입 제한이 없음 	<p>보험료 지원</p> <p>보험료 50%~90% 지원 경제적 부담을 적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보험료 19,710원~70,960원 (산재보험료 50%) - 12개월간 총 원하는 보험료를 산재하여 납부 -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업무제한(휴업급여) 등기 커짐 • 보험료 50% 지원 (연간보험료 9,855원~35,480원) 신규가입자 90% 지원 (연간보험료 1,960원~19,600원) - 제가입 후 첫 6개월간 월 본인부담금 1,960원(90% 지원, 이후 9,860원(50% 지원))
-------------------------------------------------------------------------------------------------------------------------------------------------------------------------------------------------------------------------------------------------------------------------------------------------------------------------------------------------------	-------------------------------------------------------------------------------------------------------------------------------------------------------------------------------------------------------------------------------------------------------------------------------------------------------------------------------------------------------------------------------------------	------------------------------------------------------------------------------------------------------------------------------------------------------------------------------------------------------------------------------------------------------------------------------------------------------------------------------------------------------------------------------------------------------------------------------------------------------------------------------

683명 2017년 산재보험 가입유지자

1,331명 누적가입인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예술 활동 중 재해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예술인의 등급별 산재보험료를 50% 지원하고 가입대행 등 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166명의 신규 가입자가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총 1,331명의 예술인이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경제적 혜택을 받으며 예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분야별 산재보험 누적가입자 현황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 국민연금)



1,306명 2017년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

58개 2017년 사회보험료 지원 문화예술사업자(단체)

사회보험 제도는 일반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에도 활짝 열려 있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예술인과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표준계약서 체결 사용 조건부 지원을 통해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산해 왔습니다. 이는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해 예술인의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한 산재보험은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해 중·장기적으로 예술인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

ARTIST WELFARE SUPPORT CENTER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본 요건인 '예술활동증명'의 절차와 방법, 복지지원 사업,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등에 대한 예술인들의 민원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2013년 9월 30일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개소,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방문,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예술인들의 고충상담 및 문의, 민원을 제일선에서 해결하는 창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상담과 문의를 원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에 있는 예술인복지지원센터는 예술인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컴퓨터, 프린터, 다과류를 비치하고 있으며, 월 2회 변호사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등을 상설 운영하는 등 예술인에게 밀접하게 다가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법률상담·컨설팅

ARTIST LEGAL COUNSELING AND CONSULTING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예술 활동 과정에 필요한 법률상담·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해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다양하게 업그레이드해 특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컨설팅'을 월 2회로 정례화했고,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및 일자리 박람회와 연계해 무료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77건 2017년 온라인 상담 컨설팅 건수

97건 2017년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상담 건수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및 컨설팅 현황

법률상담카페 상담 분야별 현황

구분	계약	저작권	임금체불	세무회계	법률 등 기타	합계
진행 건수	33	30	10	1	23	97
비율	34.0%	30.9%	10.3%	1.0%	23.7%	100%

법률상담카페 예술 활동 분야별 현황

분야	문학	미술	사진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기타	합계
인원	5	27	2	11	1	16.5	9.5	6	16	3	97
비율	5.2%	27.8%	2.1%	11.3%	1.0%	17.0%	9.8%	6.2%	16.5%	3.1%	100%

법률상담카페 불공정행위 상담 분야별 현황

구분	계약	저작권	임금체불	법률 등 기타	합계
진행 건수	22	12	10	11	55
비율	40.0%	21.8%	18.2%	20.0%	100%

온라인 상담·컨설팅 분야별 현황

구분	계약	저작권	사회보험	세무회계	임금체불	법률 등 기타	합계
진행 건수	62	58	5	8	8	36	177
비율	35.0%	32.8%	2.8%	4.5%	4.5%	20.3%	100%

전문 컨설턴트 온라인 및 대면상담 현황

구분	변호사	저작권 위원회	불공정 행위 신고·상담 센터	기타	합계
대면상담	29	13	55	-	97
온라인 상담	37	26	30	84	177
합계	66	39	85	84	274
비율	24%	14.2%	31.0%	30.7%	100%



예술활동증명

VALIDATION OF ARTISTIC ACTIV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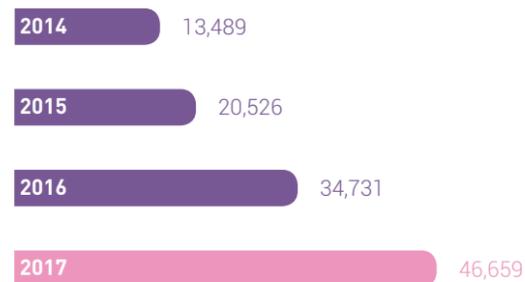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예술인복지사업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이자 법적 근거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1개 예술 분야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 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누적 인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46,65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과 예술 활동 수입 내용과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예술활동증명 연도별 누적인원



2017년 활동 분야별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2017	3,991	10,063	832	11	8,194	2,134	2,084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9,057	4,774	2,433	849	2,237	46,659		

예술인패스

예술활동증명 혜택①

45,248명 누적 발급 인원

470개 누적 참여 기관

2016년 2월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예술인패스사업'을 이관받아 '예술인패스(Art Pass)' 카드 발급률을 높이고, 문화예술인패스 참여 기관 확대에 힘써 왔습니다. 예술활동증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예술인패스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영화, 방송, 전통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해 자긍심을 높이고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2017년 12월 기준, 예술인패스 카드 소지자는 총 45,248명으로 전년 대비 36% 성장하였으며, 참여기관은 470개로, 9% 증가하였습니다.

예술인패스 접수기간 · 방법

신청 : 매달 10일, 25일 접수마감
발급 : 매달 12일, 27일 재단발급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전화 : 02-3668-0200
예술인패스 홈페이지 : <http://artpass.kawf.kr>
예술인패스 모바일페이지 : <http://first.kawfartist.kr>

예술인 행복주택

예술활동증명 혜택②

청년예술인이 행복주택 입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행복주택 신청에 필요한 증빙을 발급받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자격으로 행복주택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예술활동증명확인증빙이 필요한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쉽게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개인정보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T 02-3668-0200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제6조(예술인의 경력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를 위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PC버전 : www.kawfartist.kr, www.koreanartists.kr, 모바일 웹 : m.kawfartist.kr, m.koreanartists.kr)을 구축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24일 운영을 시작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은 예술활동증명을 근간으로 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연 단위 사업이나 상시 사업에 대한 안내와 온라인 신청 접수 등을 지원합니다. 예술인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술활동증명' 가입 및 갱신, 예술인 복지 원스톱 서비스, 포트폴리오 관리 등 재단의 사업에 참여하고 예술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단 홍보

PROMOTION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과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위해 애쓰고, 사회적으로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가 인정받아 그 결과 예술인 복지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순히 재단 사업을 예술인에게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예술인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재단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 홍보, 지면 광고, 옥외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예술인을 직접 찾아가 사업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예술인들이 다소 낯설어 하는 사업 참여 방법을 재단 직원이 직접 안내하는 '창작준비금 신청하는 날' 서비스 등 권역별, 장르별 예술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대면 홍보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예술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참여기관을 늘리고, 예술인을 위한 심리상담센터도 전국적으로 그 숫자를 확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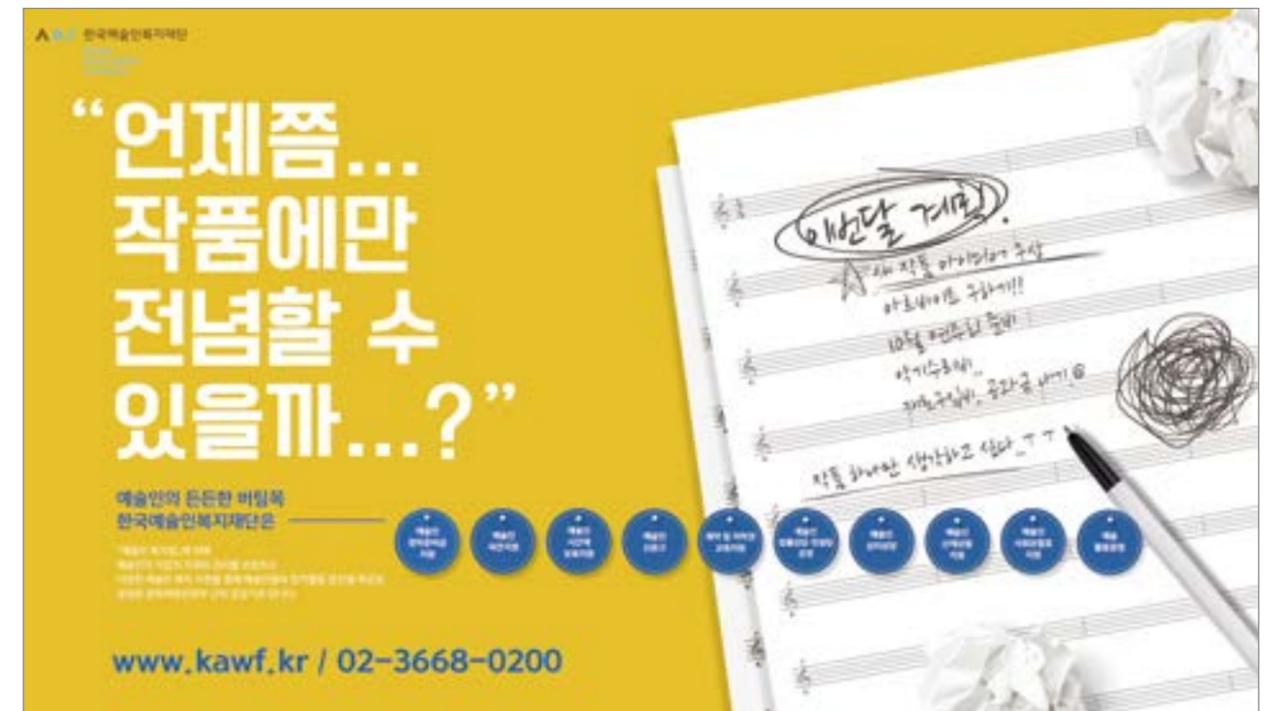
2016년 4월부터는 매달 이메일로 재단의 주요 소식들을 전했던 기존의 뉴스레터를 <예술인 복지뉴스>로 창간하여 보다 전문적인 기획과 예술인 맞춤형 정보 확대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뉴스>는 온라인 뉴스레터 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면 형태의 소식지를 통해서 전국의 예술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등 다양하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다각도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트위터), 재단 블로그를 상시 운영하면서 재단 사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소식과 이벤트, 재단 주요 행사에 대한 프리뷰와 리뷰를 전달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www.kawfartist.kr



지하철 광고
www.facebook.com/kawf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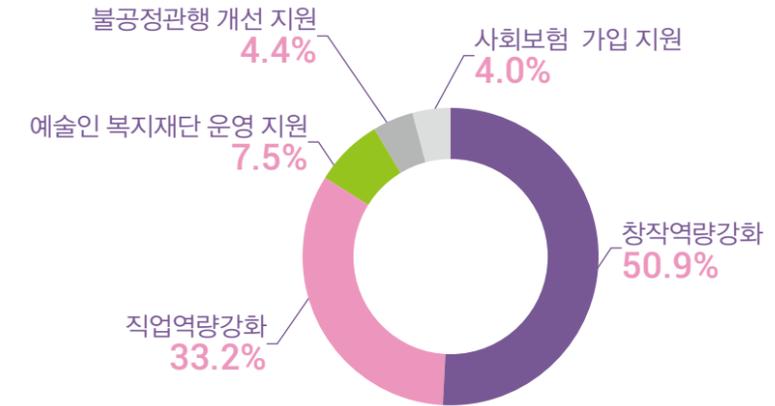


2017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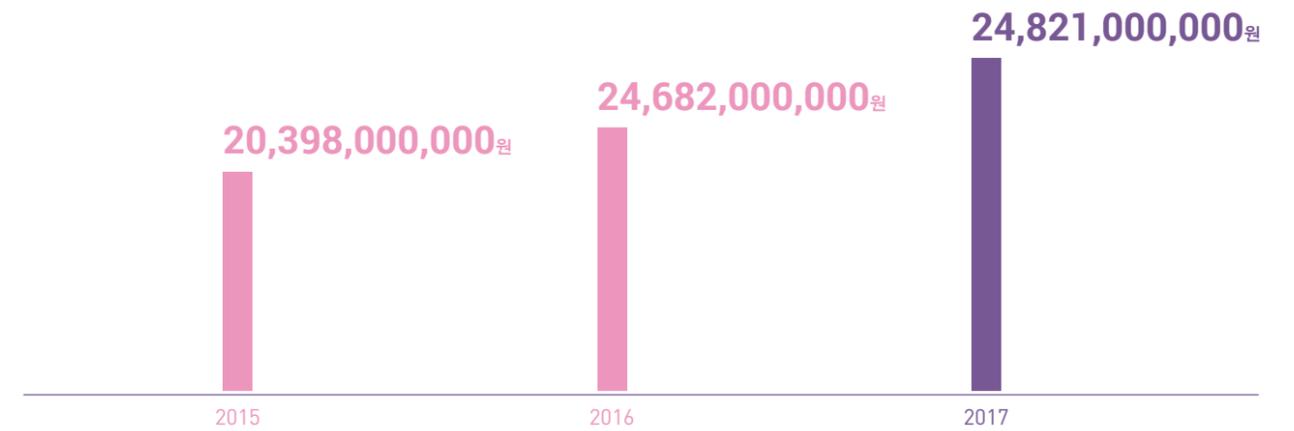
단위_천 원 (국고 기준)

세부사업명	2016	2017
창작역량강화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12,700,000	12,645,000
직업역량강화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8,266,000	8,238,000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1,080,000	1,080,000
사회보험 가입 지원	1,000,000	1,000,000
예술인 복지재단 운영 지원	1,636,000	1,858,000
총계	24,682,000	24,821,000

2017년 사업별 예산 편성



2015 - 2017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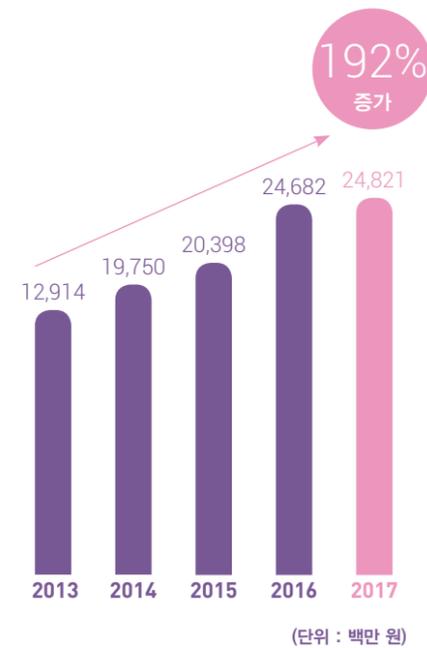


숫자로 보는
예술인 복지 사업

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

24,821,0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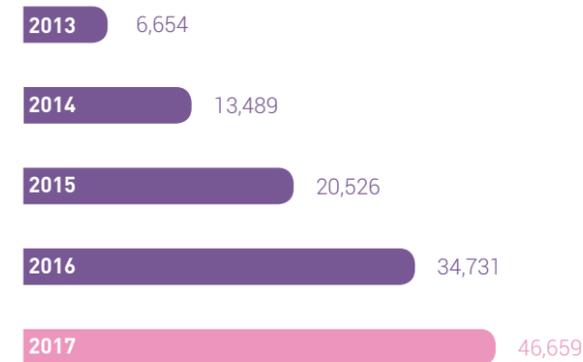


2017년 예산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쓰이는 재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약 0.56%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 직업역량강화, 창작역량강화, 불공정관행 개선, 사회보험료 등 예술인 복지 실현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46,659명



2017년 누적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를 받기 위한 참여 절차이자 법적 근거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 현장에서는 아직도 생소한 절차인 예술활동증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여 지금까지 46,659명의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15,2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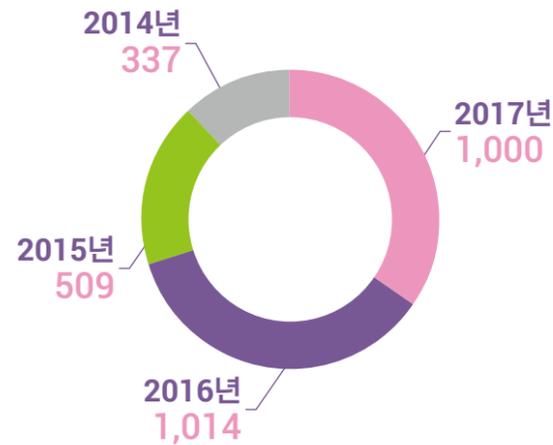
연도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인원
2017	예술인 창작준비금	1인300만 원	4,014명
2016	예술인 창작준비금	1인300만 원	4,000명
2015	예술인 창작준비금	1인 300만 원 (원료 200만원)	3,523명
2014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1인 300~800만 원	1,860명
2013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지원	1인 300만원	1,831명

2017년 누적

‘창작준비금지원’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 활동 수입에 대하여 실질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창작 기회가 적은 원로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및 사회적기여 확대의 기회를 지원하는 창작지원금은 지금까지 15,228명의 예술인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예술인 파견지원

2,86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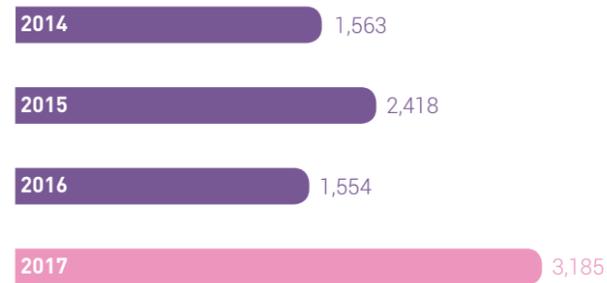


2017년 누적

예술인 파견지원은 다양한 예술직무 영역을 개발하고 기업, 기관 등 사회적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적극적 예술인복지를 실현합니다. 또한 예술적 기획·협업구조 모델을 만들어서 문화의 창조성이 사회 전 부문에 접목되어 문화, 산업, 경제로 예술인의 가치가 확대되도록 합니다. 2017년에는 퍼실리테이터, 참여예술인 등 총 1,000명의 예술인 파견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술인 시간제 돌봄 지원

8,7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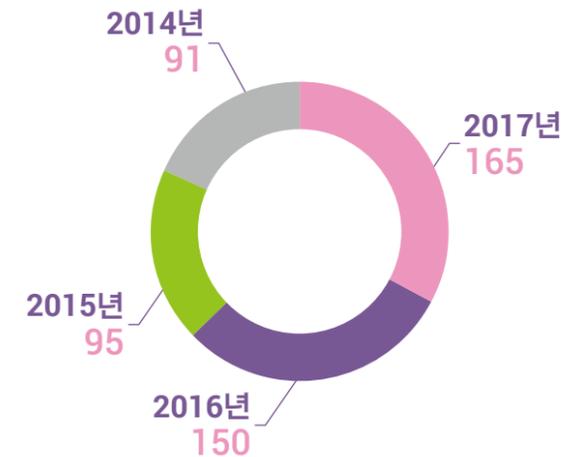


2017년 누적

예술인에게는 육아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설이용 유아와 아동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전문가 시간제 돌봄 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 연령 통합 보육으로 긍정적 사회성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2016년부터 공연예술 뿐 아니라 전 분야의 예술인으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금까지 8,720명의 예술인 자녀가 이용하였습니다.

예술인 신고

501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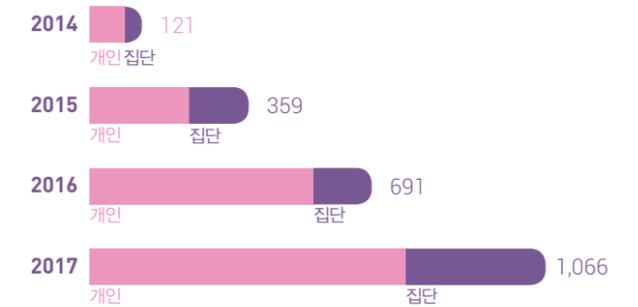


2017년 누적

예술활동 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 종합지원시스템(One-stop System)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시행령 제3조의3) 2017년까지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건수는 총 501건이며 상담건수는 526건입니다.

예술인 심리상담

2,237건



2017년 누적

‘예술인 심리상담’은 예술창작활동으로 인한 예술인의 심리적, 정신적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심리 상담을 제공하여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전국 단위로 확대운영되며 2017년까지 총 2,237명의 예술인이 상담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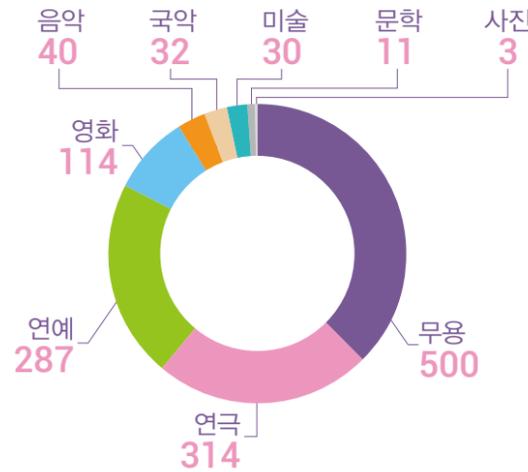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3,056 명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자

1,331 명



예술인 의료비 지원

137 명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6,325 명



2017년 누적

문화예술단체(사업자)와 예술인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지원하여 예술직업군의 사회보험 편입, 유지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인 복지처우를 개선합니다. 또한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및 보급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계약체결 문화를 정립해나갑니다.

2017년까지 3,056건, 147개 사업자(단체)가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았습니다.

2017년 누적

일반 근로자 등과 달리 산재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반액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2017년까지 산재보험 누적 신청건수는 1,331명에 달합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이 개인자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

2017년 누적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예술활동의 복귀와 지속을 도와드리며,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증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 총 13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누적

예술인의 서면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 예술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예술계에 진입할 예비예술인이 직업 세계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업 및 예비예술인 6,3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2015	3,493	8,584	4,497	2,307	1,067	486	92	20,526
2016	6,911	13,985	7,016	3,705	1,947	979	188	34,731
2017	9,189	18,933	9,000	5,127	2,754	1,350	306	46,659
2017년 비율(%)	19.62	40.71	19.32	10.91	5.86	2.89	0.66	100

분야별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다중	합계
2015	1,781	5,493	432	6	2,477	900	1,126	4,596	2,403	464	242	606	20,526
2016	2,869	7,881	625	5	5,731	1,541	1,653	7,020	3,507	1,841	544	1,514	34,731
2017	3,991	10,063	832	11	8,194	2,134	2,084	9,057	4,774	2,433	849	2,237	46,659
2017년 비율(%)	8.51	21.46	1.79	0.02	17.63	4.59	4.47	19.41	10.24	5.19	1.81	4.81	100

지역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015	10,055	658	423	862	426	415	87	13	5,312
2016	16,412	2,059	879	1,434	577	679	269	34	8,583
2017	21,406	2,994	1,139	1,920	742	901	581	82	11,146
2017년 비율(%)	45.93	6.43	2.45	4.11	1.61	1.94	1.08	0.17	23.9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015	339	234	190	466	271	208	427	140	20,526
2016	540	377	367	665	411	391	836	218	34,731
2017	705	499	500	971	528	543	1,696	306	46,659
2017년 비율(%)	1.51	1.07	1.06	2.07	1.13	1.16	3.61	0.65	100

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 유형별 신고건수

구분	누적	불공정계약강요	수익배분 거부	예술창작활동 방해	정보의 부당이용
2014	91	4	87	0	0
2015	95	6	87	1	1
2016	150	8	134	6	2
2017	165	24	135	3	3
누적(건수)	501	42	443	10	6
비율(%)	100	8.4	88.4	2.0	1.2

예술분야별 신고건수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다중	합계
신고건수	21	41	2	0	25	2	5	206	9	168	22	0	501
비율(%)	4.2	8.2	0.4	0	5.0	0.4	1.0	41.1	1.8	33.5	4.4	0	100

불공정행위 신고사건 진행현황

구분	누적	신고 절차 종료	처리 중				사건종결					
			사실 조사	시정 권고	시정 명령	조정	시정 권고	시정 명령	시정조치 및 소송지원	화해 조정	소송 지원	별도 조치 불요
2014	91	2	0	1	0	0	1	7	19	7	31	23
2015	95	5	1	0	0	0	0	21	1	4	31	32
2016	150	27	0	0	0	0	0	0	0	4	85	34
2017	165	20	56	0	0	0	0	0	0	0	45	44
누적(건수)	501	54	57	1	0	0	1	28	20	15	192	133
비율(%)	100	10.8	11.4	0.2	0	0	0.2	5.6	4.0	3.0	38.3	26.5

2017. 12. 27. 기준

창작준비금 지원

연령별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합계
2016	0	937	1,751	711	300	133	134	34	3,966	4,000
2017	3	1,214	1,536	619	303	156	149	31	3	4,014
2017년 비율(%)	0.07	30.24	38.27	15.42	7.55	3.89	3.71	0.77	0.07	100

분야별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연예)	만화	다중	합계
2016	252	800	46	1	790	143	91	1,070	387	123	72	225	4,000
2017	301	748	54	0	846	144	91	1,151	441	146	92	0	4,014
2017년 비율(%)	7.49	18.63	1.34	0	21.07	3.58	2.26	28.67	10.98	3.63	2.29	0	100

지역별

구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제주	세종
2016 창작준비금 수혜자	2,114	182	88	88	162	52	11	26	3
2017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21,406	1,920	901	1,139	2,994	742	581	306	82
2017 창작준비금 수혜자	2,073	152	81	87	200	55	22	25	8
2017 완료자 대비 수혜율(%)	9.68	7.91	8.99	7.63	6.68	7.41	3.78	8.16	9.75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합계
2016 창작준비금 수혜자	61	893	62	52	30	68	61	47	4,000
2017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705	11,146	1,696	543	528	971	500	499	46,659
2017 창작준비금 수혜자	45	890	96	55	39	87	60	39	4,014
2017 완료자 대비 수혜율(%)	6.38	7.98	5.66	10.12	7.38	8.95	12	7.81	8.60

2017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연령별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퍼실리테이터	15	94	51	17	3	0	0	180
참여예술인	90	380	141	31	2	1	0	645
협업사업	16	105	52	2	0	0	0	175
합계(명)	121	579	244	50	5	1	0	1,000
비율(%)	12.1	57.9	24.4	5.0	0.5	0.1	0.0	100

분야별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다중	합계
퍼실리테이터	24	65	9	0	16	4	10	27	19	5	1	0	180
참여예술인	49	238	17	1	68	13	27	135	75	18	4	0	645
협업사업	10	69	4	0	8	1	6	48	20	6	3	0	175
합계(명)	83	372	30	1	92	18	43	210	114	29	8	0	1,000
비율(%)	8.3	37.2	3.0	0.1	9.2	1.8	4.3	21.0	11.4	2.9	0.8	0.0	100

지역별

구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제주	세종
퍼실리테이터	107	2	4	3	3	4	1	5	0
참여예술인	378	22	8	10	13	11	6	6	2
협업사업	95	6	1	8	1	1	3	1	0
합계(명)	580	30	13	21	17	16	10	12	2
비율(%)	58.0	3.0	1.3	2.1	1.7	1.6	1.0	1.2	0.2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합계
퍼실리테이터	6	35	1	1	1	5	0	2	180
참여예술인	13	145	3	5	1	10	0	12	645
협업사업	2	45	5	0	0	6	1	0	175
합계(명)	21	225	9	6	2	21	1	14	1,000
비율(%)	2.1	22.5	0.9	0.6	0.2	2.1	0.1	1.4	100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공고일
창작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준비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300만원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준비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2016년 또는 2017년 신청일자 이전까지의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증빙 가능한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연령) 만 70세 이상 (1947년 이전 출생) - (경력) 20년 이상 예술활동경력(1997년 이전) 증빙 가능한 원로예술인 - (예술활동수행) 선정후 30일내 예술활동수행 및 증빙 가능한 원로예술인 	2월, 5월, 9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수급 참여 제한 - (소득)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 파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120만원(8개월) • [참여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120만원(6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참여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참여제한) 2017년도 창작역량강화사업 (창작준비금 지원,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교부 받은 예술인 • [참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적 개입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관(기업) 	2월중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자녀 대상 돌봄센터 2개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 : 예술인 자녀(24개월 ~ 10세) • 운영 : 화요일 ~ 일요일 (요일 운영시간 상이, 사전확인 필요) • 요금 : 시간당 500원(식·간식비 별도) • 위치 : 대학로 소재(반디돌봄센터) 망원동 소재(예봄센터) 	상시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공고일
예술인 신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신고·조사·조정·소송) 불공정 계약, 수익배분 거부 및 지연 등 불공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상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 • 예비예술인 대상 표준계약서 및 저작권 특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업 종사자 및 관련 협회, 단체 • 예술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내 관련 부서 및 단과대학 	상시
예술인 상담·컨설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컨설팅 • 계약, 저작권, 법률, 노무, 세무회계 등 상담컨설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상시
예술인 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프로그램] 심리검사, 상담(12회 한도) 정신과 진료 비용 • [단체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활동 중 파생되는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예술인 ※ 2016년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 중복 지원 불가 	상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의 50% (보수 14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 • (예술단체/사업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 	3월 중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및 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 산재보험료의 5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해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상시

201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8. 6. 29
발행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행인 정희섭

편 집 전략·홍보팀

기획 및 집필
디자인 및 인쇄 (주)현대아트컴(02. 2278. 4482)



